



에너지 전환 간략 설명

투명한 전기요금



독일은 전기요금 산정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 소비자는 본인이 낸 요금이 어디에 쓰이고 에너지 전환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독일 국민의 대다수는 에너지 전환을 지지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기후보호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할 준비도 되어 있다. 그렇지만 개인소비자는 본인이 낸 요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은밀하게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핑계로 에너지 전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 공급이 유발하는 피할 수 없는 변화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요금에 대해 최대한 투명성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출처: 셔터스톡(Shutterstock))

전기요금 산정이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강화한다

독일 입법자는 에너지회사가 최종소비자에게 요금 산정 시 매우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요구한다. 요금 고지서는 우선 간단하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 산정 요소 및 추가 주요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해지 기간, 소비량, 초기 및 최종 계량기 상태, 지불방식 및 소비자의 특정 권한 등이 이와 같은 주요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전기공급회사는 소비자와 계약 체결 후 계약서에 공급 전력의 에너지원은 무엇이고 국가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통지해야 한다.

각 소비자가 전력망 이용과 확대에 내는 송전망 이용료는 어느 정도인가? 전기에서 다양한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소비 전기는 CO2 배출이나 방사성 폐기물 형태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고지서에는 이와 같이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상세한 답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전기생산의 평균비용을 명시해 소비자가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통신청은 전기회사가 제공하는 전기 에너지원 표기 정보가 옳은지 감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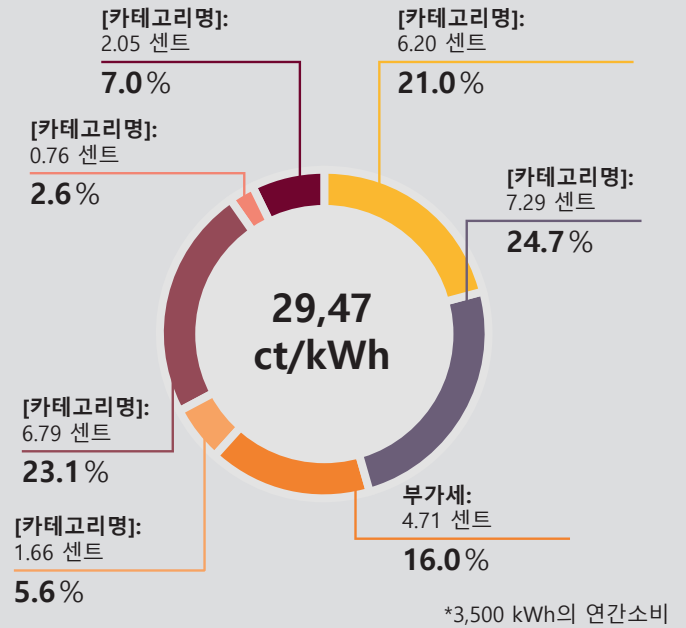
소비자가 전기요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에너지 회사는 특정 기한 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비자와 회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모든 소비자는 중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독일 연방소비자연맹과 에너지업계 협회 소속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이와 같은 중재기관이다. 중재기관은 양측의 합의 하에, 법원의 개입 없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민간 소비자에게 이 절차는 무상이다.

추가 방안

그 밖에 소비자에 대해 에너지 전환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투명성을 위한 다양한 추가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네 개의 송전시스템 운영 업체는 정기적으로 www.netztransparenz.de 웹사이트에 재생에너지 분담금 규정에 따른 요금 산정과 이 비용 산정의 기반이 되는 학술 연구와 전문가 보고서를 공개한다.

연방 경제-에너지부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미래의 에너지>라는 모니터링 프로세스에서 다양한 양적 지표를 기반으로 <지불 가능한 에너지> 목표를 점검한다. 이 양적 지표는 적합한 목표달성의 모습을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이 주제의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특히 민간 가계의 연간 평균 에너지 지출(참조: 도표 1)과 민간 가계의 평균 전기요금, 난방유와 가스의 소비자 가격 또는 시장에서 거래된 에너지 비용에 대해 보고한다.

그림 1: 2018년 독일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
(출처: 연방 에너지-수자원협회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 작성)



정보

간략 설명

개인고객은 요금 인상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에너지 공급 회사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적시에, 늦어도 정기적인 산정 기간 만료 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계약의 만료기간과 관계없이 특별 해지권을 행사한다. 이는 세금과 공과금 또는 각종 분담금 인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에너지 고객은 독립적인 중재기관인 에너지 협회(Energie e.V.)로부터 소비자 정보를 얻고 분쟁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 중재기관은 소비자와 에너지 공급 회사 간 분쟁 시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해결책을 찾는다는 목적 하에 2011년 설립되었다 (<https://www.schlichtungsstelle-energie.de>).

독일 연방소비자연맹과 에너지업계 협회가 이 독립적인 기관의 운영 단체이다.

부하 연동형 요금제와 시간 연동형 요금제는 무엇이고 이런 요금제가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전기공급업체는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최소한 부하 연동형 요금제나 시간 연동형 요금제를 제공해야 한다. 시간 종속형 요금제에서는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이 정해져 있다. 부하 연동형 요금제에서 고객은 총수요와 전력망 가동률이 낮으면 더 낮은 요금을 지불한다. 이와 같은 요금제는 전기소비 조절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동기를 마련할 수 있다. 부하 연동형 요금제와 두 개의 시간대 이상이 적용된 시간 연동형 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계량기(Smart Meter)와 가격신호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스마트 단말기가 필요하다. 전기소비 조절은 친환경 전력 공급량의 변동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에 기여한다.